“시약용은 일반 소다회와 다르다?”

무역위원회, 중국산 시약급 소다회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제외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시약급 소다회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상사가 중국산 시약급 소다회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3월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시약급 소다회와 현재 25.26%-26.4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중국산 일반 소다회 사이에 순도·용도·소비자 평가가 다르고 대체성이 없어 두 물품이 동종물품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시약급 소다회는 순도가 99.8% 이상인 고품위의 소다회로 용도는 이전까지 실험용에 제한적으로 사용됐으나, 최근 들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시약급 소다회’는 일반 소다회와 용도 및 순도 등이 다르나 10단위 HS 세번(HS 2836.20.0000)이 같아 규정상으로는 구분되지 않고 있어 무역위원회의 판정이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소다회의 국내시장은 2001년 기준으로 총수요량이 66만440톤으로 1317억원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소다회는 66만284톤으로 시장의 99.98%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시약급 소다회는 156톤으로 0.02%에 불과하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13>